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0주일(전교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제31권 48호(가해) 2011-10-23

[묵상]



베드로 성인의 복음 전파 <15c, 프라 안젤리코, 산 마르코 미술관, 피렌체, 이탈리아>

부활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왜 우리의 전교가 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진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활동에 앞서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였고
아버지와 일치하였고 아버지를 전하였던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무턱대고 선포만 할 뿐
나 자신은 예수님과 대화도 일치도 없이
예수님이 아닌 나를 선포하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의 방법은 내가 하느님과 먼저 일치하는 것
즉 복음 선포 대상 제 1호는 바로 나 자신
전교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미숙한 신앙인을 위한 것
어쩌면 바로 나 자신이 전교대상이 아닐까!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들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8: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베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 울뜨레아 -행사의 날 4째주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권순봉 요안나
	(생)
주 일 낮 미사	(연) 오진 베드로, 한병열 토마스, 고준희 제임스, 송경옥 로사, 엄익찬 안토니오, 김영선 바오로, 신태동 요아킴, 박순용 요안나, 한금용 요한, 현복임
	(생) 김형순 다니엘, 김혜정 로사, 최금옥 말찌나, 김영인 가누도, 홍석인 체칠리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1-5

화답송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 앞 - 에 당 신 정 의 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에.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를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0,9-1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8,16-20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15	187	215
봉헌	269	261	269
성체	291	289	291
파견	221	230	221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대화하시는 하느님

6). 성경 계시의 새로운 점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 대화를 통하여 당신을 알게 하신다는 데에 있습
니다. 계시 현장「하느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께서“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인간
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신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사실
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
신 자신을 통교하신다는 데에서 멈추어 선다면, 우리는 요한
성인의 서문의 메시지를 아직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요한
1,3) “사람이 되신”(요한 1,14) 그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한처
음에”(요한 1,1) 계신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의 첫머리를 암시하고 있음을 알아본다면(창세 1,1 참조), 우
리는 절대적인 처음, 우리에게 하느님의 내적인 생명에 대해
말해 주는 그 처음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서문은
우리에게 로고스가 진정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으로부터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게합니다. 하느님 안에는, 로고스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보다 앞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적 생명의 한가운데에는 친교가, 절
대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이 사도는 다른 곳에서 “하느님은 사
랑이십니다.”(1요한 4,16) 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하
느님상,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의 모습과 여정”을 가리켜 보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부께서 영원으로부터 성
령 안에서 당신 말씀을 말씀하시는 한없는 사랑의 신비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고
하느님이신 말씀께서는 하느님의 위격들 사이에서 이루어지
는 사랑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느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그 사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의 모습으로, 그분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오직 말см
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성령의 활동에 순응함으로써만 우
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조건의 수수께끼는 하느
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계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밝혀
지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유비

7). 요한 복음서 서문에 표현된 그리스도교적 신비에 관한 묵
상에서 나온 이러한 고찰들에 비추어, 이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이“하느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여러
방식들에 대해 말한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전교

“당신들 종교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가르치는 말과 행동이 달라서 종교인들에게 실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는 싫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1868-1948)가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유학을 간 영국에서 우연히 성경을 읽고 많은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 미개한 나라였고, 인종차별도 심한 때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디가 남긴 이 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지금도 유효한 말이며, 이는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해당할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복음 선포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째 사명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동시에 증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천하는 이웃 사랑으로 우리 삶속에서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를 다른 이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 신앙인의 생활이 불성실하며 거짓말과 위선, 불의와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복음을 선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복음 선포이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은 무엇보다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시적인 요구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어떤 사람들에게라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이제 외부에서 강요되는 계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를 보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며 칭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영엽 마티아 신부/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래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임정빈 보스코	박희자 마리아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아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을 독에 성화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
- ◆ 제2회 본당 신부님께 각 단체별 족구대회
- 일시 : 11월6일(주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농구장
 - 대상 : 양업회, 성모회, 대전회, 자모회, 원서회(남,여), 배론청년회(남, 여), 주일학교교사회(남, 여)
 - 경기방식 : 단체별 남녀 각각 한팀씩 총8팀 구성후 남성 여성경기로 리그전 진행
 - 참가비 : \$50(단체)
 - 상금 : 우승팀 \$150및 트로피, 준우승팀 \$50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

- ◆ 예비자를 봉헌 합니다.
- 시월은 목주기도 성월이자 **전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본당 설립30주년의 해인 올해 그 두번째 새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 환영식 : 10월30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시간 : 11월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세례식 예정 : 2012년 5월27일 성령강림대축일
 - 문의 : 복음화분과장 이영식 크리스토퍼 ☎796-6960

- ◆ 본당 ME 모임 및 사제의 날 행사
- 일시 : 10월30일(주일) 오후 6시
 - 장소 : 친교장
 - 이번 모임은 특히 ME가 제정한 사제의 날 행사를 겸한 것으로 ME주말을 다녀오신 부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 ◆ 백삼위 성모회표 김치판매(김치병 수거합니다.)
- 일시 : 10월29/30일(토요특전, 주일미사)
 - 판매에 필요한 반병(작고/큰 김치병 등)을 수집합니다. 덕에서 쓰지않는 병을 많이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성모회장 최길숙 요세피나 ☎(310)738-4788

- ◆ 제30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 (데살로니카 1서 5,18)
- 일시 : 11월2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El Dorado E. Regional Park (7550 E. Spring St. Long Beach CA 908150)
 - 2부행사 : 각 성당대항 "우리 신부님도 가수다."
 - 주최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의
 - 주관 : 천주교 성 가브리엘 성당
 -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 없습니다.

- ◆ 토요특전(청년미사) 청년밴드부 모집
- 자격 : 사우스베이 거주자로 신앙 깊은 청년 반주자
 - 지난 3년여간 청년밴드부를 열성적으로 리드해온 김기석 바오로 밴드부장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둡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의:곽수민 히메리오 청년회장 ☎(310)944-4579

- ◆ 지역사회 무료건강검진
- 일시 : 오늘 주일(23일) 낮 12시~오후 5시
 - 장소 :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2040 Artesia Bl. 토런스)
 - 검진종목 : 종합양방/한방 검진, 유방암검사, 초음파검진, 정밀혈액검사 및 특별주문 혈액검사, 골다공증(실비) 등
 - * 후원 : 수호천사보험, 월드메디칼 미션 ☎(310)324-8159

- ◆ 2011년 마지막 유아세례 신청받습니다.
- 일시 : **11월19일(토) 오후 6시**(10분전까지 모이세요.)
 - 대부 대모를 정하시고 세례식에 꼭 함께 참석하십시오.
 - 세례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
 - 12월 세례일정을 11월로 임시 변경했사오니 착오없이 바랍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23일(주일) : 토런스 서2반(버섯카레밥 \$3)
 - 10월30일(주일) : 토런스 남2,3반(콩나물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국세찬	금영도	김낙기	김병학	김재영
	김정순	김정용	노찬술	노천수	노혜숙	문충한
	박봉성	박선희	박현주	박완철	석순영	성낙호
	송재훈	신순철	양영관	오영섭	원건희	이경용
	이근태	이영미	이우성	이인두	이인석	이태욱
	전동훈	정훈모	최미열	최원석	최익수	
	합계 : \$3,810					
미사헌금 : \$2,829						

성전헌금	고천용	국세찬	금영도	김낙기	김병학	김정순
	노찬술	노천수	노혜숙	문충한	박봉성	박선희
	박현주	석순영	성낙호	신순철	양영관	오영섭
	원건희	이경용	이근태	이영미	이우성	이인석
	이일길	전동훈	정훈모	최미열	최원석	최익수
	합계 : \$2,410					
	특별목적헌금 : 한장환					

공지사항

◆ 첫영성체반/전진반 학부모와의 만남

- 첫영성체반 : 오늘 주일(23일) 오전 10시30분 2학년교실
대상 : 2학년 학부모
- 전진반 : 10월30일(주일) 오전 10시30분 10학년교실
대상 : 10학년 학부모
- 지도 : 문밥터스타 주너
- 문의 : 첫영성체반 이진원루시아 교무주임 ☎(310)780-8895
전진반 신동윤 빈센트 교사 ☎(213)500-9448

남가주 소식

◆ 남가주 가톨릭청년연합회 성경퀴즈대회

- 일시 : 11월5일(토) 오후 5시30분
- 장소 : 성프란치스코 성당
- 퀴즈범위 : 모세 오경 * 선수 : 7명 * 상금 : 어마어마함!
- 본당문의 : 배론청년회장 박수민 히메리오 ☎(310)944-4579

◆ 한인종신부제협의회 '청실홍실' 제7차 만남의 장

- 일시 : 11월13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LA 옥스포드 호텔
- 신청 문의 : 정시몬 사무국장 ☎(714)530-3111
chungsilhongsil@gmail.com

◆ 한인가톨릭 청소년대회 (Korean Catholic Youth Day)

- 일시 : 11월12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
- 주제 :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 애나하임
- 대상 : 9학년~12학년 *참가비 : \$20(티셔츠, 점심 포함)
- 본당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장 ☎(213)258-8665

◆ 천주교 성 가브리엘 성당 기념미사

- 일시 : 11월19일(토) 오전 11시
- 성당장소 : 2035 Otterbein Av. Rowland Heights, CA 91748
- 이번에 시로 탄생한 성 가브리엘 성당은 기존의 성 크리스토퍼성당과 성 마리아성당이 합병한 공동체입니다.
- 주임신부 : 한상만 토마스
- 문의 : ☎(626)965-7553 사목회장 이항 요셉

◆ 성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동계 선교활동: 뉴올리언스

- 일시 : 2012년 1월1일~1월7일
- 대상 : 대학생/청년 *신청마감 : 10월 23일까지
- 지도신부 : 최용훈 요셉 신부
- 문의 : ☎(323)734-4946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남명자 데레사 328-0847 10/14(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조혜정 마리아 213-703-8122 10/7(금) 오후 7시 성당 강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진향 아메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0/15(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10/8(토) 오후 6시 차이나부페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윤선희 로사 381-9489 10/17(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신성주 엘리사벳 850-0188 10/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10/13(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희경 크리스티나 213-458-3356 10/8(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0/15(토)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10/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10/7(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482-9108 10/21(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김택수 프란치스코 544-9532 10/2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윤혜영 클라라 902-5091 10/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11월)	오후 1시
----------------	-------

구인 : paramounttariff.com(사무직,풀타임/파트타임)

FMC.gov규정에 따른 세계유수의 회사임

* 자격 : 이중언어(한/영)가능자, 컴퓨터 필수, 시민권/영주권자

* 이력서 e-mail 요망 support@paramounttariff.com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 가서 선포하여라

이 명령은 전례 거행, 특히 성찬례 거행 때마다 계속 되살아납니다. 성찬례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서…선포하여라.’(마태 28,19 참조) 하신 그 명령으로 끝납니다. 전례는 언제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세상으로’ 보내는 새로운 파견입니다. 우리가 전례에서 체험한 것, 곧 하느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가 지닌 구원의 힘을 세상에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 모든 이에게

복음 선포는 모든 민족들을 향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부의 계획에 따라 성자의 파견과 성령의 파견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선교 교령 2항). 복음 선포는 “교회의 고유한 은총이고 소명이며, 교회의 가장 깊은 본성입니다. 교회는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합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14항). 따라서 교회는 결코 자기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구체적인 장소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그 밖으로 뻗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은총과 사랑으로, 교회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들에게 온전히 현존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 줍니다(선교 교령 5항 참조).

☞ 모든 이의 공동 책임

세계 선교라는 보편 사명은 모든 이와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합니다. 복음은 받은 사람만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할 선물이고 전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사명은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세례 받은 모든 이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세례 받은 모든 이는 “선택된 거례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1베드, 2,9)이므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 세계의 복음화

전교 주일날 교회는 교황청 전교 기구를 통하여 전교 지역의 복음화 활동을 위한 후원을 요청합니다. 이 후원은, 교리교사와 신학생과 사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는데 필요한 기구들을 돕는 것이며, 특히 가난과 어린이 영양실조, 질병의 만연, 보건과 교육 문제가 심각한 나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직접 기여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현재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사명에 공동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친교와 평화와 연대를 이룩하는 일꾼이 되어 온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행하는 데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때 부딪히는 어려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해쳐 나가야 하며, 모든 이가 함께 걷는 그 여정의 핵심은 선교입니다.

전교 주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에게 ‘가서’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열망과 기쁨을 되살리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특히 복음을 위하여 크나큰 노고를 기울이는 분들에게 교황 강복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 이용훈 주교

복음화를 위한 기도

○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밝혀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 이제 저희도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온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인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아멘